

전북 도약기업 현장 속으로

이원택 정무부지사, 농생명 ICT 전문기업 서우엠에스 방문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찰·기업 애로사항 등 소통 시간 가져

전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22일 익산시에 위치한 전북 도약기업 서우엠에스(주)를 방문해 테스트베드 견학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기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 도약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체감도를 높이고 기술혁신성을 바탕으로 고성장 중인 우수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우엠에스(주)는 2016년 12월 창업한 새싹기업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속을 드러다 보면 이미 2004년부터 데이터센터 설비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했고 2016년에는 스마트팜 버섯재배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 모니터링 기술과 식물개발 기술을

비탕으로 농생명 ICT 전문기업을 창업한 알짜배기 기업이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이곳에서 약용작물(감초) 테스트베드를 둘러보며 서우엠에스만의 특화된 스마트팜 시스템을 시찰했고, 기업체 관계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정란 서우엠에스(주) 대표는 "2019년 도약기업으로 지정되어 아직 새내기엔 불과하지만 도약기업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클라우드 기반 감초재배 ICT 스마트플랜트 판 개발을 진행 중으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약기업으로 선정되어 컨설팅, 기술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보니 이런 혜택을 좀 더 많은 기

업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창업 모토를 농민과 함께 잘사는 농업의 시작으로 한 점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서우엠에스(주)를 보니 전라북도에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팜리를 실현시킬 힘을 본 것 같아 가슴이 뵈다"면서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도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일류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가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새로운 주춧돌인 도약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전북도에서 자체 발굴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15개사가 도약기업으로 선정돼 3년 지정기간 동안 선도기업 후보군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김진성 기자



기초단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단 발족

도내 14개 시·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할 '전라북도 기초단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단'이 발족했다. 전북 기초단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단은 22일 오전 도의회 의정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단장에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추대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관광 활성화 위해 호·영남 한 자리에

경북 문경서 관광교류전 열려

전북도와 경북도가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일원에서 관광관련 공무원, 교육청, 관광협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20회 호·영남 관광교류전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0년부터 전북과 경북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이어오고 있는 관광교류전은 양도를 교차 방문하면서 지역의 관광산업 공동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관광교류전을 통해 양 도의 대표적인 관광시책을

공유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 구매 및 이용방법 등을 알리고, 시군 대표관광지, 시군대표축제, 시골마을 작은 축제 등을 홍보하여, 지역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경북관계자들이 전북 관광에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북투어패스가 지난 2017년 광역시·도 중 최초로 개발되었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상북도도 전 시·군을 아우르는

경북관광패스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전북투어패스를 많이 벤치마킹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류전에서는 전북도 수확여행 콜센터의 전담지도사, 체험학습비 및 공정 수확여행 지원 등을 알리고,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등 주요관광지를 소개하여 경북지역의 학생들이 전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김희옥 도 관광총괄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양 지역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경북지역에서 전북을 많이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전북과 경북이 화합하여 관광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호·영남 관광교류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청소년의 바람에 변화하는 전북, 함께해요"

도,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개최

전북도는 내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하에 '청소년의 바람에 변화하는 전라북도'라는 주제로 150여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전라북도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2019 전라북도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는 전북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

성된 청소년동아리 및 각 시군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 7월~8월 초 청소년 정책 제안을 공모했다.

그 결과,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 청소년 여행 지원 정책 수립, 학교 밖 청소년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제안 등 총 9건이 서면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최종 선정되는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주목할 점은 50인의 전문

심사위원 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심사하는 청소년심사단 100명이 심사 참여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한 2018 전북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는 ▲대상에 청소년의 안전한 아르바이트 환경을 제안한 군산제일고등학교(CPS팀) ▲우수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교육 정책을 제안한 군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수상했으며, 이 두가지 정책은 올해 전라북도 청소년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 /김진성 기자

친환경 섬유마케팅 지원사업 본격화

도, 프리뷰 인 서울 전시회서 '전북 Eco&Convergence 섬유관' 운영

전북도가 전북의 우수한 친환경 섬유를 홍보하기 위해 '친환경 섬유마케팅 지원 사업'을 본격화 한다.

이 사업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하는 '프리뷰 인 서울 2019(PTS 2019)' 전시회에 '전북 Eco&Convergence 섬유관'을 운영하며 도내 섬유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시회에서는 닥나무 원사, 유기농 친환경·기능성 소재, 차세대 산업용 열보호 소재 등의 아이템을 구성해 약 500여점의 전북 특화 섬유패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2개사가 참가해 국내·외 바이어와 107건의 상담과 약 19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기업을 12개사에서 15개사로, 전시부스를 8개 부스에서 12개 부스로 확대 지원하고, 원활한 기업 상담을 위해 중국어 통역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 출연기관인 ECO융합섬유연구원도 중심이 되어 친환경 섬유업의 대표격인 닥섬유(한지)의 대량생산과 자동화를 위한 '닥펄프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개발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예로부터 전주한지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왕실의 진상품으로서 생산량과 품질면에서 높이 평가되었으며, 근래에는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일본·대만 등으로 수출되기도 한다.

고품질의 한지는 백반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다 하여 백지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복잡한 제작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닥펄프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도내 섬유 기업들의 수익창출과 더불어 섬유산업의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 섬유에 대한 마케팅 및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잠을 잊은 열정이 기발한 콘텐츠가 된다!

오늘부터 3일간 군산 에이본호텔서 전북도 콘텐츠 메이커톤 대회 열려

전북도와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원장 최용석)에 따르면 늘부터 무박 3일간 군산 에이본호텔에서 2019 전라북도 콘텐츠 메이커톤 대회가 개최된다.

메이커톤이란 만들다(make)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기획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개발자 등이 팀을 이루어 무박3일 동안 쉼 없이 아이디어를 내어 주제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대회를 의미한다.

지난 3월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메이커톤 대회는 전북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획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로 발전시켜 도

내 콘텐츠산업분야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한달 간 다각적인 홍보로 20팀이 참가하였으며, 그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시제품 형태의 콘텐츠로 만들어 두 차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3팀의 우수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 콘텐츠로 선발된 3팀은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등록 지원 등 초기 콘텐츠 창업을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 분야 전문가 강연,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병

행하여 3일간의 긴장되는 경쟁만 이어지는 단순 대회가 아니라 콘텐츠 분야 창업과 취업을 꿈꾸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메이커톤 대회의 장점이 라고 평가된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메이커톤 대회를 통해 도내 재야에 묻혀 있던 콘텐츠 고수들이 발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라북도에 직접 적용하여 전라북도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